
- 울산시 · 니가타시 우호협력 체결 20주년 기념 -

니가타시 우호교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울산광역시의회
ULSAN METROPOLITAN COUNCIL
〔총무담당관〕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일본(니가타시)
2. 출장목적 : 울산광역시와 일본 니가타시의 우호협력 20주년을 맞아 실시된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지속적인 정기 교류 채널을 구축하고, 공통 산업 및 행정·문화 분야의 우수 사례 공유와 민간 교류 확대를 통해 양 도시 간 상생 협력과 의정 역량 강화 계기 마련
3. 출장기간 : 2026. 9. 17.(목) ~ 9. 20.(일) / 3박 4일
4. 출 장 자 : 총 21명
 - 울산광역시의회 대표단 7명(의원 4명, 의회사무처 직원 3명)
 - 울산광역시 관계자 6명
 - 문화공연단 '카이크루'(B-Boy 공연팀) 8명
5. 주요일정
 - 9. 17.(목) : 울산(10:00) → 니가타(18:15)
 - 9. 18.(금) : 주니가타 총영사, 니가타시장, 한일 한가위축제 참가 등
 - 9. 19.(토) : 울산페어, 울산시의회·니가타시의회 친선결연 체결 등
 - 9. 20.(일) : 니가타(7:00) → 울산(19:30)

목 차

I . 개요	1
II . 방문 국가 및 도시 개황	3
III . 주요 내용	6
1. 현장 견학(북방문화박물관, 토키멧세 전망대, 사케 양조장)	6
2. 주니가타 대한민국총영사 주재 오찬	7
3. 니가타시장 예방	8
4. 니가타부시장 주재 환영 만찬	9
5. 한일 한가위 축제 참석	10
6. 울산페어 개막식 참석	11
7. 울산시의회·니가타시의회 친선결연 서명식	12
8. 우호협력체결 20주년 기념 리셉션	13
IV . 울산광역시의회-니가타시의회 친선결연 체결	14
V . 주요성과	19
VI . 향후 조치계획 및 시사점	20
VII . 총평	21
VIII . 의원별 공무국외출장 후기	22
붙임 1(대표단 명단)	30
붙임 2(주요 언론보도)	31

- 울산시·니가타시 우호협력 체결 20주년 기념 - 니가타시 우호교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I 개 요

□ 목 적

- 울산광역시와 일본 니가타시 간 우호협력도시 체결 20주년을 기념하여 니가타시를 공식 방문하고, 양 지방의회 간 상호 이해 증진과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위한 「친선결연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추진
- 지방의회 차원에서 항만·에너지·제조업 등 양 도시의 공통 관심 산업 분야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우수 의정 사례 및 행정 모범 사례 공유를 통한 의정 역량 강화
- 문화공연 및 교류행사 참여를 통해 양 도시 시민 간 민간 우호 협력 기반을 넓히고, 한일 양국 지역 간 지속 가능한 교류 채널 구축

□ 출장개요

- 기 간 : '26. 9. 17.(목) ~ 9. 20.(일) (3박 4일)
 - 방 문 국 : 일본(니가타시)
 - 참석인원 : 총 21명(울산시의회의장, 울산시 행정부시장 등)
 - 울산광역시의회 대표단 7명(의원 4명, 의회사무처 직원 3명)
 - 울산광역시 관계자 6명
 - 문화공연단 '카이크루'(B-Boy 공연팀) 8명
- ※ 본 보고서는 울산광역시의회 대표단(7명)의 활동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주관 「울산-니가타 우호협력도시 체결 20주년 기념」 방문단 전체 일정에 동행함

□ 방문단 명단 및 역할

소 속	직 위	성 명	업무 및 역할
시의회	의 장	이영해	방문단 단장, 공식 행사 주재 및 친선결연 서명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공진혁	2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니가타시의회 현황 파악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장걸	2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니가타시의회 현황 파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현조	20주년 기념행사 참석 및 니가타시의회 현황 파악
총무담당관실	총무담당관	이세경	방문단 실무 총괄
총무담당관실	주무관	이병영	의원 활동 지원, 현지 우수 사례 자료수집
총무담당관실	주무관	김수정	의원 활동 지원, 현지 우수 사례 자료수집

□ 방문일정

일 자	구 분	주 요 일 정
9. 17.(목) [1일차]	이동	울산 → 부산(김해) → 일본(후쿠오카 경유) → 일본(니가타)
9. 18.(금) [2일차]	니가타	현지 견학(북방문화박물관, 토키멧세 전망대, 사케 양조장)
		주니가타 대한민국총영사 주재 오찬
		니가타시장 예방(니가타시청)
		니가타시 부시장 주재 환영 만찬
		‘한일 한가위 축제’ 참석(니가타 시민예술회관 류토피아홀)
9. 19.(토) [3일차]	니가타	‘울산페어’ 개막식 참가(이온몰)
		울산광역시의회-니가타시의회 친선결연 양해각서 서명식
		우호협력체결 20주년 기념 리셉션 참가
9. 20.(일) [4일차]	이동	일본(니가타) → 일본(오사카 경유) → 부산(김해) → 울산

Ⅱ

방문 국가 및 도시 개황

① 일본 개황

□ 일반현황

- 국명 : 일본국(日本, JAPAN)
- 수도 : 도쿄(東京, Tokyo)
- 인구 : 1억 2,329만명(2025, IMF)
- 면적 : 37만8000km²(한반도의 약 1.7배)
- 위치 : 동북아시아
- 행정구역 : 1도(都) 1도(道) 2부(府) 43현(縣) (총 47개)
- 종교 : 신도(神道, Shintoism), 불교, 기독교

□ 정치·경제 현황

- 정치 : 입헌군주제, 내각책임제
- 의회구성 : 양원제(참의원/중의원)
- 주요정당
 - 연립여당 : 자유민주당, 일본유신회
 - 야당 : 중도개혁연합(중의원), 공산당, 국민민주당, 참정당, 팀미라이, 입헌민주당(참의원) 등
- GDP : 4조 2800억\$ (2025, IMF) ※ 1인당 GDP : 3만 4710\$
- 경제성장률 : 1.1% (2025, IMF, real GDP growth)
- 총교역량 : 6,360억불(2026.1-5월, JETRO 월간무역동향)
- 물가상승률 : 3.3% (2025, IMF)
- 실업률 : 2.6% (2025, IMF)
- 외환보유액 : 1조 2,875억불(2026.6, 日재무성)

□ 우리나라와의 관계

- 외교관계 : 1965년 수교
- 투자현황
 - 대한투자액 : 14.9억\$(2026.1-6)
 - 대일투자액 : 1.4억\$(2026.1-3)
- 교역(2026.1-6)
 - 수출액 : 160.3억\$
 - 수입액 : 267.7억\$
- 일본체류 한국인 : 960,970명(2025, 재동청)
 - 일본국적 550,963명, 재외국민(영주권자 등) 410,007명
 - ※ 조선적 22,201명(2025.12, 법무성)
- 인적교류(2026.1-6)
 - 방한일본인 197.1만명
 - 방일한국인 567.5만명



2 니가타시 개황

□ 일반현황

- 면 적 : 726.27km² ※ 시장 : 나카하라 야이치
- 인 구 : 755,942명('25. 11. 30.)
- 행정구역 : 8개구로 구성된 정령지정도시*로 니가타현의 현청소재지
- * 정령(政令)에 의해 지정된 인구(법정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市)
- 특 징 : 강이 발달한 도시로(시나노강, 아가노강), 람사협약에 등재된 습지와 운하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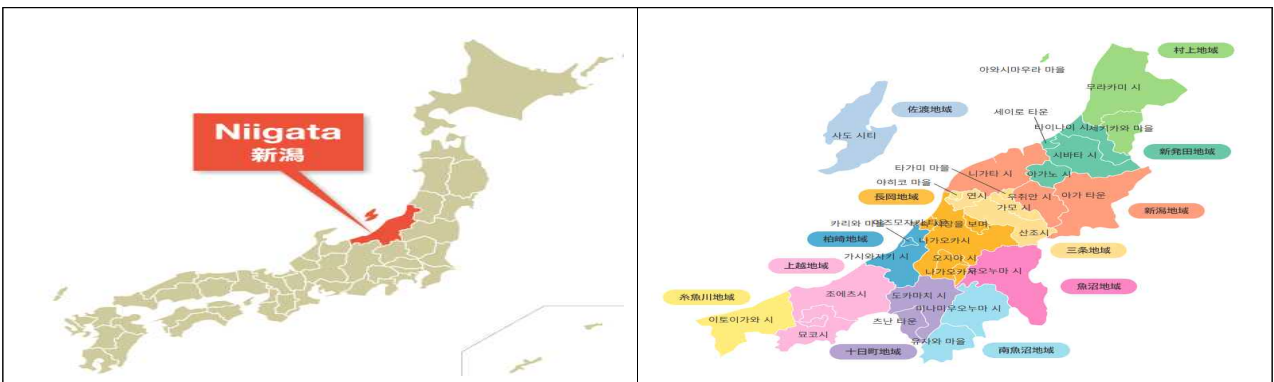
□ 경제현황

- 산업구조 : 1차산업(1.2%), 2차산업(20.4%), 3차산업(77.9%)
- 주요 공업품 : 식료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등
- 특 산 품 : 쌀(코시히카리), 수박, 튼립, 건어물 등
- 특이사항 : 8개의 국제 정기항로를 가진 니가타 공항과 니가타항을
활용하여 환동해의 중추 거점도시

□ **한국교민 : 약 830명**(2025. 12.기준)

□ 주요 교류현황

- '06. 9.20. : 울산-니가타 교류협정서 체결 니가타 방문(시장, 의장 등 9명)
- '09. 4.15. : 니가타시의회 의원 친선방문(의장 등 25명)
- '14. 7.23. : 니가타 시의회 일행 방문(시다 의장 등 10명)



Ⅲ

주요 내용

□ 현장 견학 - 북방문화박물관, 토키멧세 전망대, 사케 양조장

① 북방문화박물관

- 일시/장소 : '26. 9. 18.(금) / 북방문화박물관(北方文化博物館)
- 참 석 자 : 의장, 행정부시장 등 대표단 13명
- 주요내용 : 옛 저택과 일본 정원의 특징 등 시찰

② 토키멧세 전망대

- 일시/장소 : '26. 9. 18.(금) / 니가타 컨벤션센터 토키멧세 31층
- 참 석 자 : 의장, 행정부시장 등 대표단 13명
- 주요내용 : 니가타 시가지 및 항만 전경 조망을 통한 도시 인프라 현황 파악

③ 사케 양조장

- 일시/장소 : '26. 9. 18.(금) / 이마요쓰카사 양조장(今代司酒造)
- 참 석 자 : 의장, 행정부시장 등 대표단 13명
- 주요내용 : 니가타 지역 특산업인 사케 양조 산업 현황 견학

< 시찰 주요 내용 >

- 일본 에도시대 대지주 저택 및 전통 정원의 보존·활용 현장을 시찰하여, 지역 역사문화유산의 효과적인 보존 기법과 관광 자원화 모범 사례 벤치마킹
- 니가타항 연안 해양·산업 복합시설인 '토키멧세' 내 전망대 방문 및 니가타시 도시·항만 인프라 현황 파악
- 니가타 지역의 대표 전통 산업이자 6차 산업화 모범 사례인 사케(청주) 양조 시설을 방문하여, 지역 특산물(쌀, 용수)을 활용한 향토 산업 육성 및 관광 상품화 연계 성공 사례 시찰



북방문화박물관 시찰



북방문화박물관 시찰



토키멧세 전망대 시찰



사케 양조장 시찰

□ 주니가타 대한민국총영사 주재 오찬

- 일 시 : '26. 9. 18.(금)
- 장 소 : 반다이지마빌딩 중식당
- 참 석 자 : 방문단 8, 총영사관 3
 - 의회 5(시의장, 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총무담당관)
 - 시 3(행정부시장, 투자정책과장, 국제교류팀장)
 - 총영사관 3(임승철 총영사, 서은영 부총영사, 우병욱 영사)
- 주요내용 : 우호협력도시 체결 20주년을 계기로, 총영사관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지방외교·민간 교류 지속 확대 방안 모색 등

〈 주요 논의 사항 〉

- 양 지자체 간 의회·행정 분야 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 최근 한일 관계 동향 및 니가타 지역 동포사회 현황 공유
- 재외국민 지원 체계 및 지역 내 한인 커뮤니티 협력 방안 의견 교환
- 한일 양국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한 교류 환경 조성 방안
- 양 지역 거점 항만 및 신산업(친환경·에너지) 연계 협력 방안 모색
- 지방의회 차원의 공공외교(지방외교) 역량 강화 및 우수 의정 사례 공유



단체 기념촬영

□ 니가타시장 예방

- 일 시 : '26. 9. 18.(금)
- 장 소 : 니가타시청 시장실
- 참 석 자 : 29명(의회 7, 시 6, 공연단 8, 니가타시 7)

울산시의회	성 명	니가타시	성 명
의장	이영해	시장	나카하라 야이치(中垣内 隆久)
의회운영위원장	공진혁	부시장	사쿠마 나오미(佐久間 なおみ)
행정자치위원장	이장걸	관광교류부장	세키가와 타케히코(関川 丈彦)
산업건설위원장	백현조	국제과장	카토 히로시(加藤 浩志)
총무담당관	이세경	국제과 계장	카사하라 노오코(笠原 能子)
주무관	이병영	국제과 주사	모로하시 다케시(諸橋 武志)
주무관	김수정	국제과 부주사	오구마 라나 (小熊 良奈)

- 주요내용 : 양 도시의 지난 20년간 교류 성과를 공유하고 산업·문화·관광·청소년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 확대 및 지속적인 협력방안 논의

< 주요 논의 사항 >

- 우호협력도시 체결 20주년을 기념하며 지난 20년간 양 도시가 이어온 교류 성과 공유
- 항만·에너지·제조업 등 양 도시 공통 산업 분야에서의 향후 협력 가능성 모색
- 20주년 기념행사(리셉션, 울산페어 등)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협조 확인
- 20주년 이후 지속 가능한 교류체계 구축 필요성 공감



교류 협력논의



단체 기념촬영

□ 니가타 부시장 주재 환영 만찬

- 일 시 : '26. 9. 18.(금)
- 장 소 : 캇포 오카다(割烹仕出し 岡田)
- 참 석 자 : 17명(니가타 4, 시 6, 의회 7)
- 주요내용 : 양 도시 우호협력 20주년의 의미와 그간의 교류 성과를 되돌아보고, 경제·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확대 방안 논의

〈 주요 논의 및 성과〉

- 20주년을 맞은 양 도시 우호관계에 대한 환영 인사 및 상호 감사 인사 교환
- 양 도시의 지속적인 우호관계 발전을 위한 상호 교류와 협력 강화 논의
- 울산과 니가타의 산업·관광·문화 등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상호 이해와 교류 확대 기대
- 향후 양 도시 간 대표단 및 의회 교류를 비롯한 정례적인 교류 지속 의지 확인



의장 인사말씀



니가타시 부시장 인사말씀

□ 한일 한가위 축제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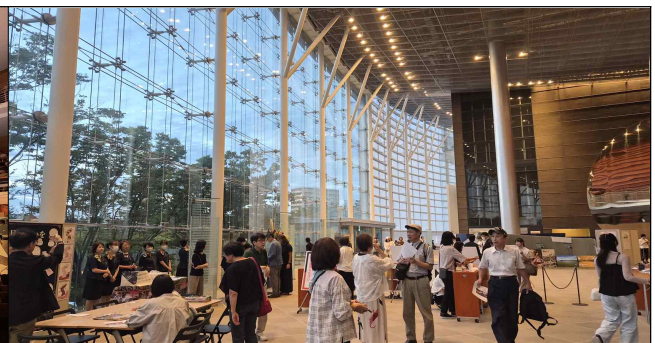
- 일 시 : '26. 9. 18.(금)
- 장 소 : 니가타 시민예술문화회관(류토피아홀)
- 참 석 자 : 21명
 - 의회 7(시의장, 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총무담당관 등)
 - 시 6(행정부시장, 투자정책과장, 국제교류팀장 등)
 - 공연단 8(카이크루 단장 등)
- 주요내용 :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를 통해 울산의 도시 브랜드를 홍보하고, 현지 한인사회와의 소통을 통한 민간 차원의 우호협력 기반 강화

〈 주요 성과 〉

- 전통문화 교류를 통한 문화·관광 협력 확대 및 울산 도시 브랜드 홍보
- 현지 한인 사회와의 소통 및 교류를 통한 민간 차원의 한일 우호협력 기반 강화
- 울산 대표 비보이 공연단 '카이크루'의 공연을 통한 울산 문화예술 역량 홍보 및 문화 교류 실시
- 현지 시민과 교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확인하고, 양 도시 간 민간교류 확대 가능성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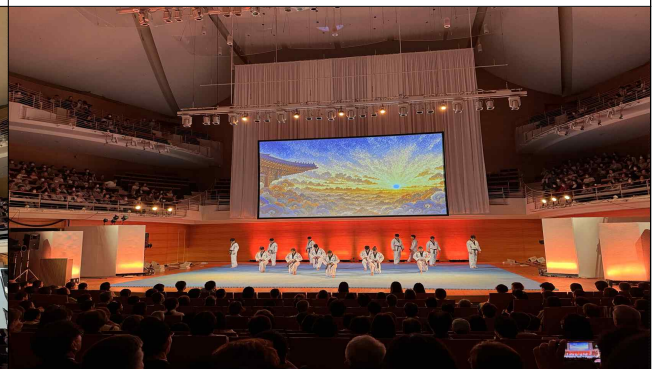
의장 축사



울산 홍보 및 체험 부스



카이크루 공연



태권도 공연

□ 울산페어 개막식 참석

- 일 시 : '26. 9. 19.(토)
- 장 소 : 이온몰(AEON MALL)
- 참 석 자 : 21명
 - 의회 7(시의장, 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총무담당관 등)
 - 시 6(행정부시장, 투자정책과장, 국제교류팀장 등)
 - 공연단 8(카이크루 단장 등)
- 주요내용 : 개막식 퍼포먼스참석 및 울산 홍보관·주요 전시부스 참관, 현지 관계자와의 교류를 통한 경제·문화·관광 분야 협력 확대 모색

〈 주요 논의 및 성과 〉

- 양 도시 간 경제·문화·관광 분야 교류 확대 및 상호 지역 특산품 홍보 확인
- 울산의 지역 문화·관광 자원 및 우수 특산품을 소개하는 전시·체험 공간 운영
- 20주년 기념행사와 연계한 도시 브랜드 홍보 및 일본 현지 판로 개척 지원



개막식 테이프커팅



울산 홍보 내용 청취



울산 문화·관광 소개



카이크루 공연

□ 울산광역시의회-니가타시의회 친선결연 양해각서 서명식

- 일 시 : '26. 9. 19.(토)
- 장 소 : 호텔 오쿠라 니가타 3층 크라운
- 참 석 자 : 17명(울산시의회 7, 니가타시의회 10)

울산시의회	성 명	니가타시의회	성 명
의장	이영해	의장	오노 세이치로(小野 清一郎)
의회운영위원장	공진혁	부의장	후카야 시게노부(深谷 成信)
행정자치위원장	이장걸	의원	쿠시다 슈헤이(串田 修平)
산업건설위원장	백현조	의원	미노 요시유키(美濃 欣之)
총무담당관	이세경	의원	사토 마사토(佐藤 正人)
주무관	이병영	의원	토요시마 마코토(豊島 真)
주무관	김수정	의원	호소노 히로야스(細野 弘康)
		사무국 국장	사카이 아키키(坂井 秋樹)
		사무국 차장	히라이데 마사시(平出 真史)
		사무국 과장보좌	에도 세이이치(江戸 誠一)

〈 주요 내용 및 성과 〉

- 양 의회 간 지속적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 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친선결연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상호 존중과 평등, 우호와 호혜의 원칙에 따라 경제·문화·교육·도시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하기로 합의
- 울산광역시의회가 독립된 지방의회 차원에서 해외 지방의회와 공식 양해각서를 체결한 첫 사례로서 의의를 가짐

※ 세부 체결 경과 및 각서 내용은 「IV. 친선결연 체결」에서 상세 기술



친선결연 양해각서 서명



단체 기념촬영

□ 우호협력체결 20주년 기념 리셉션

- 일 시 : '26. 9. 19.(토)
- 장 소 : 호텔 오쿠라 니가타 4층 컨티넨탈홀
- 참 석 자 : 21명
 - 의회 7(시의장, 운영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총무담당관 등)
 - 시 6(행정부시장, 투자정책과장, 국제교류팀장 등)
 - 공연단 8(카이크루 단장 등)
- 주요내용 : 우호협력 20주년을 계기로 양 도시 간 신뢰와 우의를 재확인 하고, 향후 20년을 위한 지속적인 교류·협력 기반 강화

〈 주요 위원회 내용 및 성과 〉

- 지난 20년간 양 도시가 이어온 우호협력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 논의
- 행정·문화·관광·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향후 20년을 위한 협력관계 발전 의지 확인



의장 축하



20주년 내빈 기념촬영



술통깨기(카가미와리) 세러머니



전체 기념촬영

IV

울산광역시의회-니가타시의회 친선결연 체결

□ 체결개요

- 일 시 : 2026. 9. 19.(토) 16:00 ~ 17:00
- 장 소 : 일본 니가타시 호텔 오후라 니가타 3층 크라운
- 서 명 자
 - 울산광역시의회 : 이영해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 니가타시의회 : 오노 세이치로(小野清一郎) 니가타시의회 의장
- 명 칭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의회 - 일본국 니가타시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양해각서】
- 의 의 : 울산광역시의회가 독립된 지방의회 차원에서 해외 의회와 체결한 첫 공식 양해각서

□ 추진경과

- 울산광역시와 니가타시는 2006년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체결한 이후 지자체 차원의 교류를 지속해 왔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2009년 니가타시의회 대표단의 울산 방문을 계기로 상호 방문과 간담회, 교육·문화 분야 교류 등을 이어왔음
- 2026년은 양 도시가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지난 7월에는 니가타시 대표단이 울산을 방문하여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한 바 있음
-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울산광역시의회는 2026년 8월 니가타시의회에 우호교류 의향서를 제안하였고, 니가타시의회가 친선결연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이번 방문을 통한 정식 체결이 성사됨

□ 양해각서 주요내용

- (기본원칙) 상호 존중과 평등, 우호와 호혜의 원칙에 따른 교류·협력
- (협력분야) 경제, 문화, 교육, 도시경영 등 다양한 분야
- (활동내용) 공통 관심사에 대한 정보와 의견 교환을 통한 상호 이해 증진, 필요시 상호 방문의 지속적 실시
- (기대효과) 우수 정책 및 행정·의정 사례 공유를 통한 의정 역량 향상, 항만·에너지·제조업 등 공통 산업 분야의 협력 기회 발굴, 문화·관광 교류 확대

□ 서명식 발언 요지

-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
 - “울산과 니가타 양 도시가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의회 차원의 친선결연을 체결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큼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경제·문화·교육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양 의회의 우수 의정 사례를 공유하여 한일 양국의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오노 세이치로 니가타시의회 의장
 - “양 도시 우호협력 20주년을 맞아 의회 간 친선결연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견고한 교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활발한 의정 교류를 통해 경제·문화 등 다방면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만들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 서명식 사진



울산시의회 의장 인사말씀



니가타시의회 의장 인사말씀



양해각서 서명



양 의회 의장 기념촬영



우호협력 방안 논의



전체 기념촬영

□ 친선결연 양해각서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의회 - 일본국 니가타시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의회와 일본국 니가타시의회(이하 “양측”이라 한다)는 상호 이해와 우호 관계의 증진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류와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친선결연을 체결한다.

1. 양측은 상호 존중, 평등, 우호 및 호혜의 원칙에 따라 경제, 문화, 교육 및 도시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고 협력한다.
2. 양측은 필요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양측이 공통으로 관심을 가지는 중요한 제반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협력한다.
3. 양측은 필요에 따라 방문을 실시하며, 교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4. 본 양해각서는 한국어와 일본어로 각 2부씩 작성하여 2026년 9월 19일 일본국 니가타시에서 서명하고, 모든 문서의 효력은 서명한 날부터 동등하게 발생한다.

2026년 9월 19일 니가타시

이 영 해

이 영 해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의회장

小野 清一郎

오노 세이치로

일본국
니가타시의회의장

新潟市議会と蔚山広域市議会による
友好関係に関する覚書

日本国新潟市議会と大韓民国ウルサン広域市議会（以下“双方”という）は相互理解と友好関係の増進を図り、持続的な交流と共通の発展を目指すため、次のとおり友好関係を確認する。

1. 双方は相互に尊重、平等、友好及び互恵の原則に従い、経済、文化、教育及び都市経営などさまざまな分野で交流し協力する。
2. 双方は必要な時に情報と意見を交換し、双方が共通して関心を持つ重要な諸般の問題に対し相互理解を深めるために協力する。
3. 双方は必要に応じて訪問を実施し、交流に関する細部事項は別途協議する。
4. 本覚書は日本語と韓国語で各2部ずつ作成し、2026年9月19日日本国新潟市で署名し、すべての文書は双方の代表者が署名した日から同等の効力を持つ。

2026年9月19日 新潟市にて

日本国
新潟市議会
議長

小野 清一郎

小野 清一郎

大韓民国
蔚山広域市議会
議長

이영해

イ ヨンハ

□ 지방의회 차원 우호교류 기반 마련

- 그간 집행부 간 우호협력에 머물러 있던 교류를, 울산광역시의회와 니가타시의회 간 공식 양해각서 체결로, 향후 의회 주도의 정책 교류·입법 정보 공유가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 이번 체결로 양 도시 의회는 정례 교류 채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의장단 간 상호 방문 정례화 등 후속 논의의 출발점이 됨

□ 문화·민간교류 저변 확대

- 대표단은 '한일 한가위 축제' 및 '울산페어'에 직접 참석하여 현지 한인사회 및 니가타 시민을 대상으로 울산의 도시 브랜드와 의회 차원의 교류 성과를 알리는 계기를 마련함

□ 산업협력 논의를 위한 정책적 공감대 확인

- 니가타시의회 친선결연을 통해 항만·에너지·제조업 등 양 도시가 공유하는 산업 기반을 확인하고, 이러한 산업 현안에 대해 양 의회가 정책적 관심을 공유하며 향후 상임위원회 등 실무 차원의 협력 논의로 이어갈 공감대를 형성함
- 이를 통해 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 제·개정 및 정책 지원 방안을 검토할 근거를 확보함

□ 20년 우호관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 2026년 7월 니가타시 대표단의 울산 방문(20주년 기념식)에 이어, 9월 울산시 대표단의 답방으로 상호 교차 방문이 완성되어, 의회가 주도하는 다음 20년 협력 관계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함

□ 정기 교류채널 구축

-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양 의회 간 정기적 상호 방문 및 화상회의 등 상시 소통 채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니가타시의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을 파악하여 울산광역시의회 상임위원회와의 대응 관계를 매칭하고, 이를 토대로 상임위 간 실무 교류를 정례화하는 방안 검토

□ 산업협력 실무 협의 추진

- 항만물류·청정에너지·제조업 등 양 도시가 공유하는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 중심의 후속 실무 협의체 구성 검토

□ 문화·관광 교류 정례화

- '한일 한가위 축제', '울산페어' 등 상호 문화행사 참가를 정례 사업화하여 양 도시 시민 간 교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
- 나아가 청소년·문화예술단체 등 민간 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 차원의 재정·행정 지원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의정 역량 강화

- 니가타시의회의 의정 운영 체계, 상임위원회 구성 및 조례 제정 사례 등에 대한 후속 자료를 수집·비교 분석하여 울산광역시의회 의정활동의 참고자료로 활용
- 이를 계기로 양 의회 간 우수 정책·조례 공유를 위한 정례 세미나 또는 자료 교환 체계 마련을 제안

이번 니가타시 방문은 2006년 우호협력도시 체결 이후 20년간 이어 온 울산광역시와 니가타시의 관계를 지방의회 차원의 공식 양해각서 체결로 한 단계 발전시킨 뜻깊은 계기였다. 특히 울산광역시의회가 해외 지방의회와 독자적으로 체결한 첫 공식 양해각서라는 점에서, 단순한 의전적 교류를 넘어 향후 의회 간 실질적인 정책·의정 교류의 제도적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방문 기간 중 니가타시장·부시장 예방, 총영사 오찬, 친선결연 체결식, 20주년 기념 리셉션 등 공식 일정과 함께 ‘한일 한가위 축제’, ‘울산 페어’ 등 민간·문화 교류도 진행되어 양 도시 간 행정과 민간 차원의 우호관계를 함께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다만 이번 방문이 상징적인 협약 체결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친선결연 양해각서에 명시된 경제·문화·교육·도시경영 등 분야별 구체적인 후속사업과 실무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항만·물류·에너지·제조업 등 양 도시의 공통 산업 기반을 활용한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이 요구된다.

울산광역시의회는 이번 친선결연을 계기로 니가타시의회의와의 교류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기 교류채널과 상임위원회 간 정책·실무 협력에 기반한 지속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번 경험을 향후 해외 자매·우호도시 의회와의 교류에도 활용하여 지방의회 차원의 국제교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지방의회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의 시대로

울산광역시의회 의장 이영해

울산광역시의회 방문단 단장으로서 울산광역시와 니가타시 간 우호 협력도시 체결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단순한 의례적 방문을 넘어 지방의회 차원의 공공외교 역량을 실질적으로 입증한 역사적인 계기였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며, 그 사이 양 도시는 행정 교류를 중심으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번 방문은 그 신뢰의 토대 위에서 '의회'라는 새로운 주체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2006년 양 도시가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맺은 이래 지속되어 온 교류의 역사 위에서, 이번 2026년 방문은 울산광역시의회가 독립된 지방의회 차원에서 해외 의회와 체결한 첫 공식 양해각서인 '대한민국 울산광역시의회 - 일본국 니가타시의회 간 친선결연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니가타에서 열린 체결식에서 니가타시의회 오노 세이치로(小野清一郎) 의장과 함께 서명하며, 양 도시 의회 간 정기적인 교류 체계 구축과 다각적 협력 강화를 약속하였습니다. 서명 직후 양 의장이 맞잡은 손과 교환한 인사말에는 지난 20년의 신뢰뿐 아니라 앞으로의 20년에 대한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공식 일정 또한 알차게 채워졌습니다. 니가타시장 예방, 한일 한

가위 축제, 울산페어, 20주년 기념행사 등을 차질 없이 참여하여, 향후 20년을 향한 단단한 신뢰와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카가미와리 세러머니는 일본의 전통적인 축하 의식으로, 양 도시 관계자들이 함께 나무통을 깨고 술을 나누는 모습 자체가 이번 순방의 상징적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공식 행사 외에도 주니가타 대한민국 총영사관(임승철 총영사 등)과의 간담회에서는 지자체 및 의회 차원의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과 함께 최근 한일 관계 동향, 재외국민 지원 및 동포사회와의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의회가 중앙 정부의 외교 채널을 보완하는 '풀뿌리 공공외교'의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도 오갔습니다.

더불어 북방문화박물관의 전통 정원 및 저택 시찰, 토키멧세 전망대에서의 도시·항만 인프라 현황 파악, 전통 사케 양조장 방문 등 다각적인 현장 시찰을 통해 니가타시의 역사·문화·산업이 지닌 고유의 자산화 전략을 다각도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오랜 전통과 현대적 도시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니가타의 모습에서, 울산 또한 산업도시로서의 정체성과 역사·문화 자산을 함께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모색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거둔 성과가 일회성 이벤트로 그치지 않도록, 울산광역시의회 대표단장으로서 양 지역 간 의회·행정·산업·문화 교류가 선순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견고히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장 직속으로 후속 추진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상임위원회별 협력 과제가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의회 차원의 공공외교를 더욱 체계화하여 울산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진 의정운영 체계 구축과 지방의회 공공외교 가이드라인 정립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이번 니가타시 방문은 양 도시의 우호 결연 20주년을 축하함과 동시에, 니가타시의회 의정 운영 시스템과 의회 간 교류 방식을 직접 확인하고 의회운영 차원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기회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운영, 의정 활동 지원 등 의회 조직 전반의 효율성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만큼, 이번 방문 내내 '이 좋은 협력의 틀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출장의 핵심 성과인 '울산광역시의회-니가타시의회 친선 결연 양해각서' 체결 과정에서, 의회 운영의 실무적·제도적 지원 체계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통역·의전·문서 교환 등 국제교류 실무가 어떻게 준비되고 진행되는지를 곁에서 지켜보면서, 향후 유사한 국제 교류 행사를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무 매뉴얼의 필요성도 함께 느꼈습니다.

니가타시의회 의회 운영 방식, 상임위원회 활동 체계, 의정 활동 지원 인프라 등을 비교 분석하며, 향후 양 의회 간 정기 교류 및 의원 간 소통 채널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다각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화상회의 등 비대면 소통 수단을 상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나, 의원 교환 방문 시 상호 참관할 수 있는 표준 일정 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은 향후 우리

의회에도 충분히 적용해볼 만한 시사점이었습니다.

또한 주니가타 총영사관 간담회에서는 지방의회 차원의 공공외교(지방외교) 역량 강화 방안과 우수 의정 사례 공유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국제교류가 자칫 의전과 행사 중심에 머무를 경우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운영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목표와 평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새삼 확인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업무 관점에서, 향후 해외 의회와의 국제교류 추진 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정 활동 지원 체계와 표준 가이드 라인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제교류 추진 절차, 예산 편성 기준, 성과 평가 방식 등을 포괄하는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울산광역시의회 의정 지원 역량을 끌어올리고, 니가타시의회를 비롯한 해외 자매·우호도시 의회와의 교류가 한층 더 내실 있게 지속될 수 있도록 의회 운영 전반의 제도적·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경험을 계기로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국제교류 관련 표준 운영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교육 교류의 다변화와 재외동포 지원 및 문화행정 발전 방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장걸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우호협력도시 20주년 기념행사 및 친선결연 양해각서 체결에 함께하며, 울산과 니가타 양 도시가 행정 및 교육, 문화 분야에서 어떻게 상생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 집중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다루는 영역이 자치행정,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이번 출장에서는 '의전상의 협력'을 넘어 실제 행정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니가타 대한민국 총영사관과의 간담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와 밀접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최근 한일 관계의 동향 속에서 니가타 지역 한인 커뮤니티 및 동포사회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외국민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현지 동포 사회의 세대교체와 정체성 유지 문제, 차세대 한인 청소년에 대한 모국 연계 교육의 필요성 등은 울산시가 향후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과제로 다가왔습니다. 이는 향후 우리 시의 재외동포 관련 정책 및 교류 사업 추진 시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것입니다.

현장 시찰 일정 중 방문한 북방문화박물관에서는 일본 전통 저택과 정원의 보존 및 활용 실태를 관찰하면서, 지역의 역사 문화유산을 어떻게 현대적 행정·관광 자원으로 관리하고 승화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방문객에게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는 방식,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울산의 역사·문화 자원 보존 및 공간 활용 행정 정책에도 직접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특히 원도심 내 근대 산업유산이나 전통 가옥 등을 활용한 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구상하는 데 있어, 이번 시찰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반영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방문을 통해 확인한 니가타시의 행정 조직 운영 방식과 시민 참여 행정 사례 역시, 향후 울산시 행정 혁신 논의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발굴한 행정·교육·문화 교류 과제들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정책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위원회 차원의 검토와 입법·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재외동포 지원 사업과 문화유산 활용 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거점 항만 연계 및 친환경·신산업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구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백현조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산업도시 울산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라는 관점에서 이번 니가타시 공무국외출장에 임했습니다. 니가타시는 환동해 거점 도시로서 울산과 마찬가지로 항만과 산업 인프라가 발달한 도시이기에 산업·건설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실제로 두 도시 모두 항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 협력 모델을 설계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출장 기간 중 니가타 컨벤션센터 토키멧세 31층 전망대 시찰을 통해 니가타 시가지와 항만 시설 전경을 조망하며, 도시 인프라 배치와 항만 물류 체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항만과 배후 산업단지, 도심 기능이 효율적으로 연계된 니가타의 도시계획은 향후 울산항 배후단지 개발 방향을 고민하는 데 있어 유용한 참고 사례가 되었습니다.

또한, 전통 사케 양조장 현장 방문에서는 지역 고유의 양조 산업을 현대적인 브랜드 및 관광 산업과 연계시킨 성공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울산의 지역 특화 산업 및 제조업 유산의 관광 자원화 정책에 유용한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전통 산업이 단순히 보존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스토리텔링과 브랜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습은 울산의 조선·화학 산업 유산을 활용한 산업관광 콘텐츠 개발에도 응용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총영사관 간담회 및 현지 관계자들과의 논의 과정에서는 울산과 니가타 양 지역의 거점 항만을 연계한 물류 협력과 더불어, 친환경·에너지 분야 등 신산업 부문에서의 공동 협력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양 도시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교류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수소·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양 도시가 보유한 기술력과 인프라를 상호 공유할 경우, 단순한 우호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현장 시찰과 간담회를 통해 얻은 산업·인프라 분야의 우수 사례와 정책 아이디어를 울산시의 산업건설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양 도시 간 실질적인 경제·산업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차원의 정책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차원에서 항만물류·친환경에너지 분야 실무 협의체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고, 필요시 관련 조사·연구 용역 예산 편성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1
대표단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의회 (7명)	울산광역시의회	의 장	이 영 해	
	운 영 위 원 회	위 원 장	공 진 혁	
	행정자치위원회	위 원 장	이 장 결	
	산업건설위원회	위 원 장	백 현 조	
	총 무 담 당 관	총 무 담 당 관	이 세 경	
	〃	주 무 관	이 병 영	
	〃	수 행 비 서	김 수 정	
시 (6명)	행 정 부 시 장 실	행 정 부 시 장	서 남 교	
	〃	비 서	박 성 호	
	투 자 정 책 과	투 자 정 책 과 장	김 미 경	
	〃	국 제 교 류 팀 장	엄 진 영	
	〃	주 무 관	신 자 립	
	〃	주 무 관	김 민 서	
공연단 (8명)	카 이 크 루	대 표	소 재 환	
	〃	단 원	천 병 준	
	〃	〃	이 범 수	
	〃	〃	노 희 범	
	〃	〃	윤 상 민	
	〃	〃	장 수 현	
	〃	〃	추 서 현	
	〃	〃	송 인 서	

붙임 2 주요 언론보도

연번	보도일	언론사	보도제목
1	'26.9.18.	울산종합일보	울산시의회·日 니가타시의회, 20년 우호 넘어 교류 확대
2	'26.9.18.	코리아타임뉴스	울산시의회, 일본 니가타시의회와 친선결연 양해각서 체결
3	'26.9.19.	jcn울산중앙방송	울산시의회와 일본 니카다시의회 '친선결연' 체결
4	'26.9.19.	연합뉴스	울산시의회, 日 니가타시의회와 친선결연...우호도시 20주년 결실
5	'26.9.20.	경향신문	울산시의회, 일본 니가타시의회와 친선결연...경제, 문화 등 교류 늘린다
6	'26.9.21.	경상일보	울산시의회-日니가타시의회 우호협력 20년 '친선결연 MOU'
7	'26.9.21.	울산신문	시의회-니가타시의회, 지속 교류·발전 합의
8	'26.9.21.	울산매일	경제·문화·교육 등 교류 확대 지역발전 견인
9	'26.9.21.	울산제일일보	한일 양국 지역발전 견인 든든한 파트너
10	'26.9.21.	울산광역매일	한일 지방의회, 새로운 우호 교류 시작

□ 주요 언론 보도

울산시의회·日 니가타시의회, 20년 우호 넘어 교류 확대

박기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8 15:58:26



양 의회 친선결연 양해각서 체결
경제·문화·교육 등 협력 강화
항만·에너지·제조업 교류 모색



▲ 울산시의회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니가타시를 방문해, 방문 셋째 날인 19일 일본 니가타시의회와 '친선결연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갖고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와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울산시의회, 일본 니가타시의회와 친선결연 양해각서 체결

우호교류 20주년 맞아 지방의회 차원 교류 강화, 공동 분야 협력 촉진

김태훈 기자 | ktn@koreatimesnews.com

등록: 2026.09.16. 10:15:03



▲ 울산시의회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가 일본 니가타시의회(의장 오노 세이치로)와 친선 결연을 체결하고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와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울산시의회 대표단은 2026년 9월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니가타시를 방문했으며, 방문 셋째 날인 9월 19일 친선결연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영혜 울산시의회 의장은 “울산과 니가타 양 도시가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의회 차원의 친선결연을 체결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경제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양 의회의 우수 의

https://www.koreatimesnews.com/news/article_view.php?news_id=123456789

4/2

9. 16. 2026 오후 2:27

코리아타임뉴스

정 사례를 공유하여 한일 양국의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친선결연은 울산시와 니가타시가 2006년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지방의회 차원의 상호 이해와 우호 관계를 한층 증진하고자 추진됐다.

울산광역시의회와 니가타시의회는 2006년 니가타시의회 대표단의 울산 방문을 시작으로 대표단 상호 방문과 간담회, 교육문화 분야 교류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호 관계를 이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울산시의회가 2026년 8월 우호교류 의정서 체결을 제안하고, 니가타시의회가 친선결연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관련 절차와 의회 의결을 거쳐 양 의회 간 친선결연이 최종 성사됐다.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르면 양 의회는 상호 존중과 평등, 우호 및 조화의 원칙에 따라 경제, 문화, 교육, 도시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필요시 상호 방문을 지속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방문단은 시의회 7명, 울산시 관계자 6명, 문화공연단(카이크루) 8명 등 총 21명 규모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체결식 외에도 주니가타 대한민국총영사 초청 오찬 환담, 니카하라 아이치 니가타시청 예방, 사쿠마 나오히 니가타 부시장 주재 환영만찬 등에 참석했다.

아울러 ‘한일 안가워죽게’ 및 ‘울산페어 개막식 참석과 함께 울산시 공연단의 문화공연, 주요 관내 시설 시찰 등 다채로운 교류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친선결연을 계기로 양 의회는 우수 정책 및 행정 사례를 공유하여 의정 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친환경에너지제조업 등 양 도시가 공유하는 공동 산업 분야의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문화관광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의회와 일본 니카다시의회 '친선 결연' 체결

2026년 9월 19일 모닝N울산

연암뉴스

울산시의회, 日 니가타시의회와 친선결연...우호도시 20주년 결실

송고 2026-09-19 17:00

항만·제조업 등 산업 분야 공유...경제, 문화, 교육 등 교류·협력하기로



일본 니가타시 방문한 울산지역의 대표단
[울산지역의 대표단, 재민에 및 DB 공표]

(울산=연암뉴스) 허경우 기자 = 울산시의회는 19일 일본 니가타(新潟)시의회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고, 두 도시 간 지속적 교류와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명학 의장을 비롯한 울산시의회 대표단 7명은 울산시 대표단과 함께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우호협력 도시인 일본 니가타시를 방문 중이다.

시의회 대표단은 방문 셋째 날인 19일 니가타시의회를 찾아 오노 세이치로 의장을 포함한 의원들과 협담하고, '친선결연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졌다.

이번 결연은 울산시와 니가타시가 2006년 우호협력 도시 관계를 맺은 시 2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지방의 회 차원 상호 이해와 우호 관계를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울산시의회와 니가타시의회는 2009년 니가타시의회 대표단의 울산 방문을 시작으로 대표단 상호 방문, 간담회 개최, 교육·문화 분야 교류 등 지속해서 우호적 관계를 이어왔다.

제2연 양해각서에 따르면 양 의회는 상호 존중과 평등, 우호와 호혜 원칙에 따라 경제, 문화, 교육, 도시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하기로 했다.

또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필요시 상호 방문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명학 의장은 "결연을 계기로 항만·에너지·제조업 등 공동 산업 분야를 공유하는 두 도시가 경제·문화·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실질적 교류를 확대하고, 양 의회 우수 의정 사례를 공유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k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19 17:00 송고

경향신문

연태까지 원소

울산시의회, 일본 니가타시의회와 친선결연...경제, 문화 등 교류 늘린다

입력 2026.09.20 13:03

마우사 기자 woosa@kyunghyang.com



울산시의회 대표단이 일본 니가타시를 찾아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는 일본 니가타시의회와 교류 증진을 위한 친선결연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명학 의장 등 울산시의회 대표단 7명은 울산시 대표단과 지난 17~20일 3박 4일 일정으로 우호협력 도시인 일본 니가타시를 방문 중이다.

시의회 대표단은 지난 19일 니가타시의회를 찾아 오노 세이치로 의장과 '친선결연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www.khan.co.kr/print.html?art_id=202609201303061&media=khan&type=basic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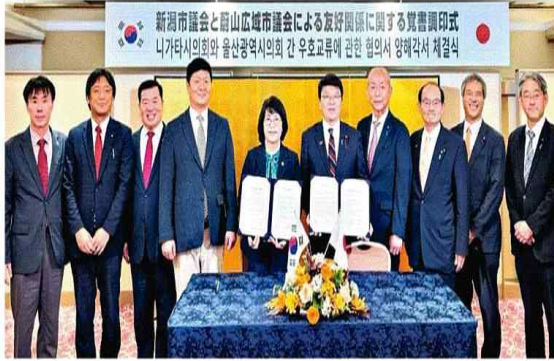
9.27. 오후 2:23

기사 인쇄 | 울산시의회, 일본 니가타시의회와 친선결연...경제, 문화 등 교류 늘린다 - 경향신문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 의회는 상호 존중과 평등, 우호와 호혜 원칙에 따라 경제, 문화, 교육 등 분야에서 교류·협력하기로 했다.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상호 방문도 이어가기로 했다.

올해는 울산시와 니가타시가 2006년 우호협력 도시 관계를 맺은 이후 20주년이 되는 해다. 울산시의회와 니가타시의회는 2009년 니가타시의회 대표단의 울산 방문을 시작으로 대표단 상호 방문, 간담회 개최 등 우호 관계를 이어왔다.

이 의장은 "친선결연을 계기로 에너지, 제조업 등 공동 산업 분야를 공유하는 두 도시가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실질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며 "양 의회 우수 의정 사례를 공유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장이 지난 19일 일본 니가타시의회 오노 세이치로 의장과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와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친선결연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갖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日니가타시의회 우호협력 20년 '친선결연 MOU'

지방의회 차원 해외 교류 첫 사례
산업 비롯 문화·관광 등 협력기로

울산시의회가 국의 지방의회와 첫 친선결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대상은 올해로 우호교류 20주년을 맞은 일본 니가타시의회다.

울산시의회(의장 이영해)는 지난 19일 일본 니가타시의회(의장 오노 세이치로)와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와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친선결연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울산시의회가 독립적인 지방의회 차원에서 해외 의회와 공식 양해각서를 체결한 첫 사례다.

이영해 의장을 비롯해 시의회 관계자 7명, 울산시 관계자 6명, 문화공연단 '카이크루' 8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된 울산시 대표단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니가타시를 방문했다.

방문 셋째 날 진행된 서명식에서 이영해 의장은 "울산과 니가타 양 도시가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의회 차원의 친선결연을 체결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이번 체결을 계기로 경제·문화·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실질적 교류를 확대하고, 우수 의정 사례를 공유해 두 도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와 니가타시는 지난 2006년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맺은 이후 지자체 간 교류를 이어왔으며, 의회 차원에서도 2009년 니가타시의회 대표단의 울산 방문을 시작으로 상호 방문과 간담회를 지속해 왔다.

이번 친선결연은 울산시의회가 2025년 12월 31일 제정한 '울산시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지난 8월 공식 제안을 전달하고, 관련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성사됐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양 의회는 상호 존중과 평등의 원칙 아래 경제, 문화, 교육, 도시 경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또 공통 관심사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하며 필요시 상호 방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항만, 에너지, 제조업 등 두 도시가 공유하는 주요 산업 분야의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문화·관광 교류를 더 넓혀 나갈 방침이다.

한편, 대표단은 방문 기간 중 양해각서 체결 외에도 주니가타 대한민국 총영사 초청 오찬 회담, 니카하라 아이치 니가타시장 예방, 사쿠마 나옴이 니가타 부시장 주재 환영 만찬 등에 참석했다. 아울러 현지에서 열린 '한일 한가위축제'와 '울산페어' 개막식에 참석하고 울산시 공연단의 문화공연과 지역 내 주요 시설 시찰 등 다채로운 교류 행사를 소화했다. 전성현기자 honey@ksilbo.co.kr

울산신문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005면 정치 시의회-니가타시의회, 지속 교류·발전 합의

우호협력 20주년 친선결연 서명
경제·문화·교육 등 다방면 협력

울산시의회가 일본 니가타시의회(의장 오노 세이치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고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와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울산시의회 대표단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니가타시를 방문했으며 방문 셋째 날인 9월 19일 '친선결연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은 "울산과 니가타 양 도시가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의회 차원의 친선결연을 체결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경제·문화·교육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양 의회의 우수 의정 사례를 공유하여 한일 양국의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친선결연은 울산시와 니가타시가 2006년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지방의회 차원의 상호 이해와 우호 관계를 한층 증진하고자 추진됐다.

울산시의회와 니가타시의회는 2009년 니가타시의회 대표단의 울산 방문을 시작으로 대표단 상호 방문과 간담회, 교육·문화 분야 교류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호 관계를 이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울산시의회가 2026년 8월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을 제안하고 니가타시의회가 친선결연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관련 절차와 의회 의결을 거쳐 양 의회 간 친선결연이 최종 성사됐다.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르면 양 의회는 상호 존중과 평등, 우호 및 호혜의 원칙에 따라 경제, 문화, 교육, 도시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하기로 했다. 또 공통 관심사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필요시 상호 방문을 지속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울산시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니가타시를 방문해, 방문 셋째 날인 지난 19일 일본 니가타시의회와 '친선결연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갖고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와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울산시의회 제공

“경제·문화·교육 등 교류 확대 지역발전 견인”

울산시의회·日 니가타시의회 결연 다양한 분야 협력·우수사례 공유

울산시의회(의장 이영해)가 일본 니가타시의회(의장 오노 세이치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고, 두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와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울산시의회 대표단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니가타시를 방문했다. 대표단은 방문 셋째 날인 지난 19일 일본 니가타시의회와 '친선결연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은 “울산과 니가타 양 도시가 우호협력 관계

를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의회 차원의 친선결연을 체결하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경제·문화·교육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두 의회의 우수 의정 사례를 공유해 한일 양국의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친선결연은 울산시와 니가타시가 2006년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지방의회 차원의 상호 이해와 우호 관계를 한층 증진하고자 추진됐다. 울산시의회와 니가타시의회는 2009년 니가타시의회 대표단의 울산 방문을 시작으로 대표단 상호 방문과 간담회, 교육·문화 분야 교류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우호 관계를 이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울산시의회가 2026년 8월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을 제안하고, 니가타시의회가 친선결연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관련 절차와 의회 의결을 거쳐 두 의회 간 친선결연이 최종 성사됐다.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르면 두 의회는 상호 존중과 평등, 우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경제, 문화, 교육, 도시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공통 관심사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필요시 상호 방문을 지속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방문단은 시의회 7명, 울산시 관계자 6명, 문화공연단 8명 등 총 21명 규모로 구성됐다. 강은정 기자 kej@iusm.co.kr

울산제일일보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005면 정치

“한일 양국 지역발전 견인 든든한 파트너”

울산시의회-니가타시의회, 경제·문화·교육 등 교류협력 강화 친선결연 양해각서 체결

울산시의회와 일본 니가타시의회가 양 도시의 우호협력 관계 20주년을 맞아 의회 차원의 친선결연을 맺고 교류와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양 의회는 이번 결연을 계기로 경제·문화·교육은 물론 환경·에너지·제조업 등 공통 산업 분야까지 교류의 폭을 넓히며 양 도시의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울산시의회 대표단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니가타시를 방문해 19일 니가타시의회에서 '친선결연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영해 의장은 서명식에서 “울산과 니가타 양 도시가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의회 차원의 친선결연을 체결하게 돼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경제·문화·교육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양 의회의 우수 의정 사례를 공유해 한일 양국의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친선결연은 울산시와 니가타시가 2006년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맺은 이후 20년간 이어온 교류를 의회 차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울산시의회와 니가타시의회는 2009



울산시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니가타시를 방문해, 방문 셋째 날인 19일 일본 니가타시의회(의장 오노 세이치로)와 '친선결연에 관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갖고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와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사진제공=울산시의회

년 니가타시의회 대표단의 울산 방문을 시작으로 양국 의회 대표단의 상호 방문과 간담회, 교육·문화 분야 교류 등을 이어오며 우호 관계를 다져왔다.

이를 바탕으로 울산시의회가 지난달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을 제안했고, 니가타시의회가 친선결연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관련 절차와 의회 의결을 거쳐 이번 결연이 최종 성사됐다.

양 의회는 양해각서를 통해 상호 존중과 평등, 우호 및 호혜의 원칙에 따라 경제·문화·교육·도시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하기로 했다.

또 공통 관심사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필요할 경우 상호 방문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울산시의회 대표단은 시의원 7명과 울산시 관계자 6명, 문화공연단 '카이크루' 8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친선결연 체결 외에도 주니가타 대한민국총영사 초청 오찬 회담, 나가하라 아이치 니가타시장 예방, 사쿠마 나옴이 니가타 부시장 주재 환영 만찬 등에 참석했다.

또 '한일 한가위축제'와 '울산페어' 개

막식에 참석하고 울산시 공연단의 문화 공연과 주요 시설 시찰 등 다양한 교류 일정도 소화했다.

울산시의회는 이번 친선결연을 통해 양 의회의 우수 정책과 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의정 역량을 높이는 한편, 환경·에너지·제조업 등 울산과 니가타가 함께 가진 산업적 특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력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문화와 관광 분야의 교류도 확대해 지방의회 간 우호 관계를 양 도시 시민 간 교류로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정락 기자

한일 지방의회, 새로운 우호 교류 시작

울산시의회(의장 이영해)가 일본 니가타시의회(의장 오노 세이치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고, 양 도시 간 지속적인 교류와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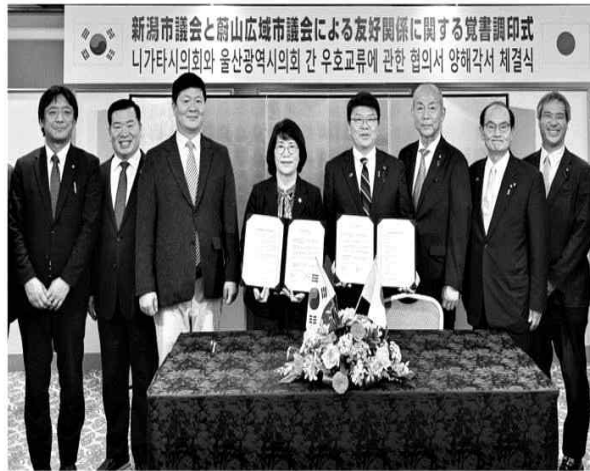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니가타시를 방문한 울산시의회 대표단이 방문 셋째 날인 19일 니가타시의회와 '친선 결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이영해 울산시의회 의장은 “울산과 니가타 양 도시가 우호협력 관계를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의회 차원의 친선 결연을 체결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경제·문화·교육 등 다방면에서 실질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양 의회의 우수 의정 사례를 공유해 한일 양국의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친선 결연은 울산시와 니가타시가 2006년 우호협력도시 관계를 맺은 지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지방의회 차원의 상호 이해와 우호 관계를 한층 증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울산광역시의회와 니가타시의회는

울산시의회 이영해 의장, 日 니가타시의회와 ‘친선 결연’ 체결
양 도시 우호 교류 20년 맞아...지방의회 교류 강화·협력 박차



일본 니가타시를 방문한 울산시의회 대표단이 방문 셋째 날인 19일 니가타시의회와 '친선 결연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지난 2009년 니가타시의회 대표단의 울산 방문을 시작으로 대표단 상호 방문과 간담회, 교육·문화 분야 교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이어왔다.

이를 바탕으로 울산시의회가 지난 8

월 우호교류 의향서 체결을 제안하고, 니가타시의회가 친선 결연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관련 절차와 의회 의결을 거쳐 이번에 양 의회 간 친선 결연이 최종 성사됐다.

체결된 양해각서에 따라 양 의회는 상호 존중과 평등, 우호·호혜의 원칙에 따라 경제, 문화, 교육, 도시 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하게 된다. 또 공동 관심사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필요시 상호 방문을 지속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니가타시 방문단은 시의회 7명, 울산시 관계자 6명, 문화공연단('카이크루') 8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 대표단은 체결식 외 주니가타 대한민국 총영사 초청 오찬 환담, 나카하라 아이치 니가타시장 예방, 사쿠마 나옴이 니가타 부시장 주재 환영 만찬 등에 참석했다.

아울러 '한일 한가위 축제' 및 '울산 페어' 개막식 참석과 함께 울산시 공연단의 문화공연, 주요 관내 시설 시찰 등 다채로운 교류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친선 결연을 계기로 양 의회는 우수 정책과 행정 사례를 공유해 의정 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향만·에너지·제조업 등 양 도시가 공유하는 공통 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문화·관광 교류를 더욱 확대해 나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종식 기자